호주 환경교육의 특색

- 환경교육 센터와 학교 환경교육의 연계 -

김 현 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Ⅰ. 오스트레일리아 학교 형성의 특징

1970년대까지 호주를 비롯한 유럽의 대중 의무 교육(mass compulsory schooling)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존재해왔다. 또한 민주주의 및 시민의 자질과 교육 사이의 관계에 교육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학교교육은 역사적으로 계몽 프로젝트 (Enlightenment Project) 즉, 미신을 넘어선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관습의 형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동시에 현대 산업과 **책임감 있는 시민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인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

호주 학교 교육의 시작을 Wolloongong, New South Wales 의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herington, G., 1990:114-133)

1) 19세기 중반(1800년대 중반) - 식민지 교육, 가족의 생계와 관련하여 직능 교육과 유사한 교육 형태, 종교 기관이 설립한 학교
   ① 농민 계층 가정 중심 (dairy farm education; farming family)
   ② 종교적 정체성이 학교교육에 반영됨(아일랜드 카톨릭 계통 학교)
   ③ 부모 역할의 강조(의무 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장려)
   ④ 1880년 Public Instruction Act 의 발효로 종교 종파간 학교 설립의 자유가 인정됨. (Protestants: 정부가 지원하는 public school vs. Catholic Ireland: local parish school-지역 교구 학교)

2) 19세기 후반(1800년대 후반) - 의무 교육의 시도

① 노동자 계층 가정 중심(주로 광산을 중심으로) : 가정 경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 학교의 설립. 가족 생계와 연관된 교육과정의 구성.

② 의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됨

③ 편모 가정에 대한 교육 재정 지원 (등록금 면제)

3) 20세기 초반(1900년대 초반) - 교육 제도의 정착

① 아이들의 가정에서 역할 변화 : 종전의 가정 경제가 아닌, 가사의 (domestic tasks, family work) 분담 역할로 진행해감. 경제 불황과 산업패턴의 변화로 대부분의 가정이 이전의 낙농이나 광업 등을 포기하면서 이 같은 경제·사회적 여파가 교육 형태의 변화로 나타남.

② 1906년 Education Act 발효 : 공립학교(public school) 등록금 폐지. 1916년 ~ 1917년의 교육 법령에 따르면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벌금제도를 둠.

③ Parents and Citizens Associations 설립.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지역 단체 활동으로 확대되어 교육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됨.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호주 학교 교육 및 교육 발전의 전반적 특징**은 첫째, 국가 형성 **초기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 기관의 운영, 둘째, **농민 계층 및 광산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셋째, **가정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의 전개 넷째, **의무교육과 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Ⅱ. 오스트레일리아의 학교 환경교육

1. 개요[14)]

14) Queensland School Curriculum Council (2001)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Years 1 to 10 Sourcebook Guidelines, The State of Queensland. 의 내용으로부터 발췌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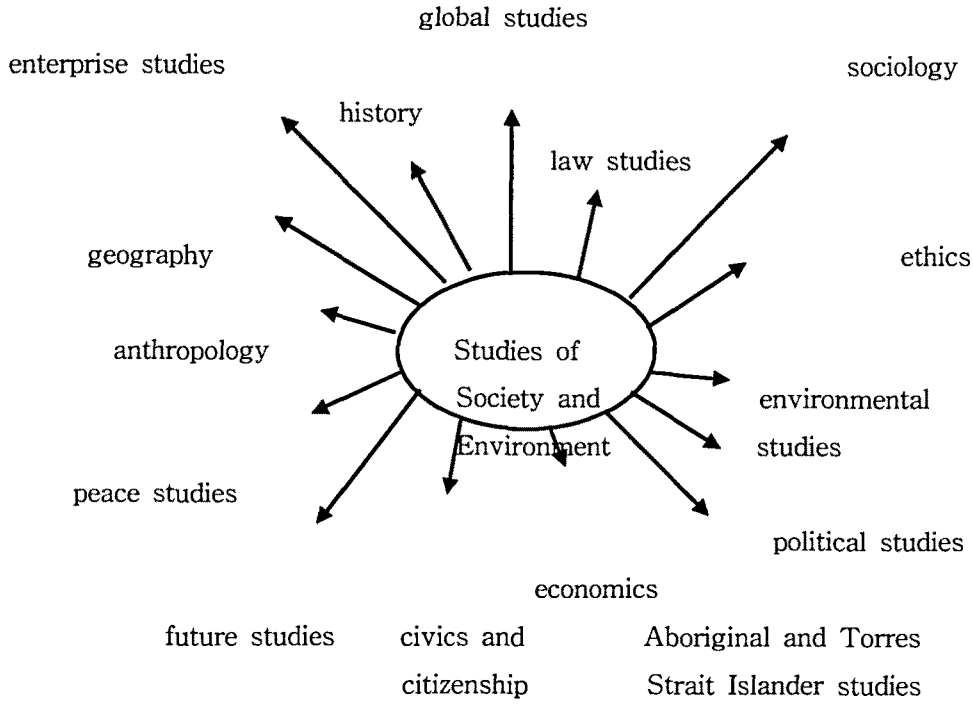
호주의 초·중등학교 환경교육은 교육 과정상 SOSE, 즉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사회와 환경'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는 호주의 8개 국가 핵심 학습 영역 중의 하나다. 핵심 학습 영역이란 영어, 수학, 과학, 기술, 제2외국어, 보건체육, 예술, 그리고 사회와 환경이 그것이다. 사회와 환경 교육 과정 개발의 주된 목적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특히 9학년과 10학년의 선택 과목으로 국민윤리, 지리, 역사의 교수 요목(syllabus)을 개발하는 데 있다.

'사회와 환경'은 시공간적 다양성 안에서 환경, 문화, 경제, 정치 체제를 탐색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의 초점은 다양한 시공간 및 문화 공간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학생들의 체계적인 조사활동, 의사소통, 창조, 성찰, 실천의 과정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 환경, 역사, 경제, 정치 혹은 문화적 이슈를 조사하는 기술과 과정을 발달시킨다. 또한 사회정의의 가치, 민주주의 과정, 평화와 생태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와 환경'은 역사, 지리, 사회 연구, 경제, 정치, 시민의식과 같은 요소와 연계되어 있다.

2. 국가 교육 과정의 환경교육

① 성격

국가 교육 과정에서 환경교육은 '사회와 환경' 을 중심으로, 총 12학년의 초·중등 교육과정 중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의 핵심 학습 영역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과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와 환경의 가치, 과정 및 개념은 교과의 범위와 연구 내용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사회와 환경' 교육 과정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교과 및 연구 분야

출처 : Queensland School Curriculum Council, 2001:3.

② 가치 (value)

* 민주주의 과정 * 사회 정의 * 생태적·환경적 지속가능성 * 평화

위의 가치들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연구, 비판된 개념 * 주제의 선택을 위한 지침

* 조사과정의 평가 기준 * 학습 결과의 구성요소

네 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다시 '생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는 생태계와 경제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한다. 이 과정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명 부양의 기초 자원으로서 그들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현명하고 정당하면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한다.

생태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경제적 시스템이 상호의존적임을 인식할 때 이루어지며, 경제 시스템이 인간의 요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자연 환경을 보전할 때 지속가능하다.

생태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세계가 직면한 한계를 인식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정치,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유지함에 의해 행해지는 환경에 대한 윤리적 행동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러한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으며 모든 생명을 다루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며 어떻게 우리가 자원을 관리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지를 보여준다. 생태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가치 탐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성찰(reflection; 반성)을 포함한다.

- 생물 다양성
- 자본
- 보존
- 창조성
- 생태 보전
- 경제 성장
- 경제 자원
- 효율
- 기업
- 유산(heritage)
- 솔선수범(initiative)
- 세대간 형평
- 시장성
- 가격
- 생산성
- 부족, 결핍
- 생활 수준
- 청지기 정신(stewardship)
- 지속가능성
- 야생환경의 가치

③ 교육 과정 간의 협력 (Cross-curricular priorities)

사회와 환경 교육과정의 핵심 학습 영역은 문해(literacy), 수리(numeracy), '삶의 기술'(lifeskill), 미래의 전망(future perspective)에 관한 교육 과정과 연계된다.

문해력은 모든 교육 과정의 기초가 되는 학습 능력으로 갖추어져야할 영역이다. 여기에는 비판적 문해력(critical literacy), 다중 문해력(multiliteracy), 민주 시민 문해력(civic literacy)이 포함된다.

'수리능력'은 사회와 환경 교육 과정에서 사회, 인공 및 자연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학습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리능력은 데이터의 수집, 조직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삶의 기술'은 인성 개발 기술, 사회성, 자기 관리 기술, 시민으로서의 기술을 포함한다. 사회와 환경 교육 과정은 수많은 방식으로 삶의 기술을 촉진한다. 특히 조사, 창조, 참여, 의사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삶의 기술은 향상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식, 가치 등 복합적인 기능들이 모두 사용된다.

'미래의 전망'은 최근 수십 년 간 환경 및 사회의 급속한 변화의 결과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낙관적 태도를 북돋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사회와 환경의 미래를 새롭게 형성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준비할 책무와 권한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교육가들이 사회와 환경 교육 과정이 이러한 영역을 촉진하는 데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Ⅲ.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교육 센터와 학교 환경교육의 연계

1. 호주의 환경교육 센터[15)]

호주에서는 환경교육 센터의 움직임이 일찍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 시작은 전국 각지의 야외학습 센터(Field Study Centre)로부터였으며 이들의 활동에서 힘을 얻어 보다 조직적인 환경교육 활동을 벌이기 위해 공식적인 환경교육 센터(Environmental Education Centre)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야외학습 센터(FSC)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것이 현재의 환경교육 센터(EEC)들이다.

학교교육을 통한 공식 환경 교육 과정의 출현 전에 호주의 사회 및 커뮤니티 맥락에서 환경교육 센터의 발전이 이어져 왔다. Gough, G(1991:94)에 따르면 호주 환경교육의 기원은 1970년의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al Crisis"에 관한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 Conference로부터 찾을 수 있다. 호주에서 '환경교육' 이란 용어는 최초로 위의 회의에서 쓰여졌다. 이 회의는 환경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개발된 환경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환경교육에 초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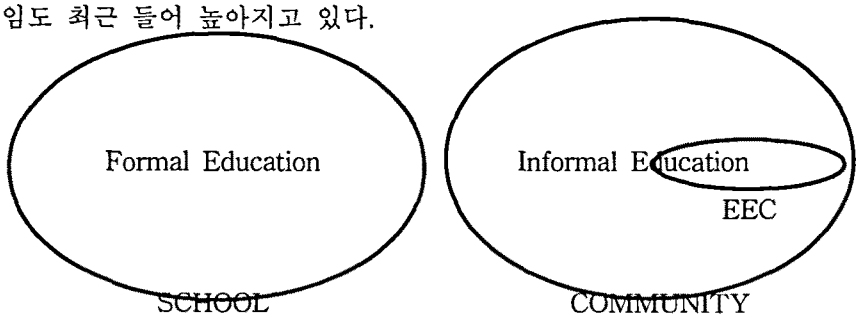
15) 야외학습 센터(Field Study Centre; FSC)
환경교육 센터(Environmental Education Centre; EEC)

두고 있었다.Webb, J. B.(1980:26)은 교육 체계 안에서 각각의 주정부가 환경 교육 시설들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적 요구에 부응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원래 1987년까지 '야외학습 센터'로 불리다가 1988년 이후 공식적으로 이 기관들을 환경교육 센터로 명명하게 되었다.

(1) 환경교육 센터의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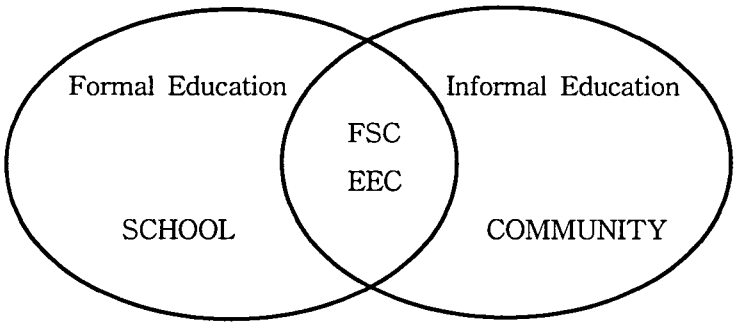
환경교육 센터의 의미가 한국과 호주의 역사적 맥락과 학교 제도에 따라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학교 환경 교육과 사회 환경 교육으로 양분되는 한국 교육 제도의 틀 안에서, 환경교육 센터는 학교 교육 밖의 사회 환경 교육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다. 즉 Formal 이 아닌 Informal의 의미를 지닌다. 이에 반해서, 호주의 환경교육 센터는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 교육의 보조 기관으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 즉 Formal Education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요컨대, 한국의 환경교육 센터는 Formal Education의 범주를 학교 교육으로 한정하는 범위에서 Informal Education에 포함되는 반면, 호주의 환경교육 센터는 학교 교육의 보조기관으로서 학교 학생에게 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교육함은 물론 교사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Formal Education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호주의 환경교육 센터는 Informal Education의 범주인 커뮤니티 환경교육의 역할에 대한 책임도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그림 5 > 한국 EEC의 교육 제도상 위치

16) Formal, Informal, Non-formal Education의 적절한 한글 개념이 모호하여 본 지에서는 영문 표기하였다. 'Formal Education'은 '공식 교육'으로 번역이 가능하나 'Informal'과 'Non-formal'의 구분이 의미상 확연하다고 해도 번역할 적확한 한글 단어를 찾기 어려운 점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지에서는 'Informal Education'을 '비공식 교육'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6 > 호주의 FSC와 EEC의 교육 제도상 위치

① 환경교육 센터의 Formal Education

호주의 환경교육 센터는 교육부 산하의 야외학습 센터로부터 출발했다. 따라서 호주의 환경교육 센터는 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의 일부다. 특히 퀸즈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교육부 아래 FSC를 설립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및 교사교육(in-service training)을 시행해 왔다.

이와 같은 내용은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부가 1988년 발표한 환경교육 교육과정 성명에서 야외학습 센터가 환경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중요성 및 특수한 역할 수행에 관해 밝혔다. 또한 퀸즈랜드 주의 야외학습 센터 관련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환경교육에서 교사교육은 그것이 informal education 이라 할지라도 퀸즈랜드 야외학습 센터의 주요 목표로 다루어져야 한다."

야외학습 센터는 본래 초등학교 자연과학 수업의 연장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중등학교의 지리와 생물 과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는 좀더 통합된 내용, 이슈 중심, 광범위한 경험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격이 변모해 왔다. 동시에 자연계의 기초지식, 원주민(Aboriginal) 연구, 지역 이슈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다중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야외학습 센터 혹은 환경교육 센터가 늘어났다. 즉 교사 방문을 위한 모델, 교사와 학생을 위한 학습자료 제공,

일시 방문 센터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 장소에서만 운영되기보다 여러 가지 해설에 도움이 되는 장소까지 확장된 다목적 시설이 된 것이다.(Webb, J. B., 1989:30)

처음 센터의 활동 초기에는 교육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으로 저학년 학생들이었다. 중등학교 학생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학교 커리큘럼상의 문제와 시간표 조정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센터들은 중등학교 커리큘럼에 맞춰 특정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취학 전 아동과 중등학교 학생, 고등교육 기관, 직업전문 연수기관인 TAFE를 통한 환경교육, 그리고 원주민과 노인층까지 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환경교육 센터의 Informal Education

호주의 환경교육 센터들은 커뮤니티 교육과 더 많은 연계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퀸즈랜드의 환경교육 센터와 멜번 동물원, 국립 공원의 방문자 센터와 개인적인 야외 활동 등을 통해 커뮤니티 교육과 더욱 긴밀한 연계를 이루려는 의지를 표현해 왔다. 이러한 예로 퀸즈랜드의 환경교육 센터와 환경교육 센터는 대중 및 커뮤니티 집단에 의해 사용되곤 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런 형태는 대부분의 북미 환경교육 센터가 연중무휴로 운영되면서 주중에는 학교 학생들의 방문을 받고 주말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유사하다. 주중의 학교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과 별도로 주말에 일반 시민 및 커뮤니티 그룹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위한 직원의 배정에 있어서 훈련된 자원봉사자의 활용, 주마다 순번제로 교사를 배치하여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 시간제 교사의 충원,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직원을 충원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었다.

동호회(Special Interest Group)들의 환경교육 센터 활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높아져, 뉴사우스웨일즈의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은 시드니에 도시학습 센터(Urban Study Centre)를 설립하는 데 조력했으며, Bicentennial Committee는 Woy Woy 라는 지역의 역사 깊은 작은 교회에 환경 센터 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환경 문제가 빈발하는 곳으로 커뮤니티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국립공원의 해설 센터(interpretation centre)는 주로 성인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공원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커뮤니티의 연계를 독려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Webb, J. B., 1989:31)

(2) 환경교육 센터의 설립 요건

환경교육 센터의 설립 요건으로 크게 네 가지: 부지, 건물, 프로그램, 사람을 들 수 있다.

① 부지(Land)

이상적인 환경교육 센터 부지는 교육을 위한 각종 다양성을 갖춘 형태이며 충분한 여분의 토지가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비용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대중교통 수단으로부터 센터까지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과 캠핑 장소가 들어서는 곳에는 배수, 피난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이 원활하여야 한다.

학교 근처에 세워진 환경교육 센터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 근처의 환경교육 센터는 실제 캠프 장소가 학교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적당하다. 그러나 최소 경비를 들여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토지나 기타 정부 기관의 토지 및 숲에서 가까운 위치가 바람직하다.

② 프로그램(Program)과 건물(Building)

부 지가 선정된 후에는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활동의 계획과 부지 및 빌딩의 개발에 대한 계획이 동시에 연계되어야 한다. 제안된 계획과 학교 및 커뮤니티 방문자들과 친밀한 사람들의 요구가 건축 요건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주 건물은 전시 공간, 도서관, 사무실, 화장실, 회의실(마이크, 스피커 및 각종 오디오 비주얼 시설 포함) 및 방문자 워크숍 장소 혹은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은 가능하면 외부와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입구는 옷이 물에 젖거나 흙이 묻은 채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올 때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와 공지게시판을 위한 충분한 벽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외부 집합 장소 혹은 캠프파이어를 위한 통나무 벤치 혹은 의자를 갖춘다. 직원들을 위한 업무 공간은 문서의 프린팅과

각종 기자재 및 전시물들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창고 및 관리실 공간은 건물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필요하다. 그 외에 자생식물 정원 및 새 모이 장소와 같은 교육 공간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③ 사람(People)

환경교육 센터의 성패는 운영진의 자질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환경교육 센터는 훈련된 교육 감독(director)과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보조원 및 비서, 관리인과 시설보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의 교육부 지원을 받는 센터들은 그러한 직원 구성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교육 부문의 직원은 실제 환경교육을 위한 여러 종류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정원 관리, 시설 보수 유지, 야외 활동 계획, 응급 처치 등에 관한 지식을 모두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소규모의 환경교육 센터로 운영되어 관리자와 선생님으로 구성된 센터들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 호주 환경교육 센터 설립의 경향은 주로 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소에서 이제는 커뮤니티 그룹을 위한 장소로 변모해왔으며(Webb, J. B., 1989:5-6) 현재에는 커뮤니티 그룹들의 활발한 활동 장소로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다.

(3) 야외학습 센터 : 고전적 환경교육 형태

① 역사

호주의 야외학습 센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성장하던 1970년대에 호주 전역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1986년 호주를 방문한 영국 WWF 교육 컨설턴트 John Huckle의 언급에 의하면, 영국에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던 반면, 호주에서는 초기의 관심이 유지되었고, 부분적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적 지원이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호주의 정치적, 교육적 흐름은 영국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으로 바뀌었다.

야외학습 센터의 효시라고 할만한 움직임은 1939년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Broken Bay National Fitness Camp에 세워진 'The Broken Bay Sport and Recreation Centre'로부터 시작되었다. Allen Strom(1987) 의 언급에 의하면 이 레크리에이션 센

터가 학교 캠핑 프로그램을 위한 야외학습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실제로 1940년 11월의 첫 학교 캠프 프로그램에서 자연과학적 내용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외학습 센터의 효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Field Studies의 내용이 식물 연구, 동물 연구, 암석 연구 등과 같이 자연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볼 수 있다.

또 1940년에 Minnard Crommelin of Pearl Beach에 생태 보전 연구와 교육적 목적으로 Field Station이 설립되었다. Allen Strom은 1946년 Sydney University에 Field Station을 설립하여 학생들이 그 곳을 찾고 있다.

1960년대에,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Fauna Protection Panel이 식물 보존을 위한 야외학습 센터의 설립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 때 영국의 야외학습 센터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British 야외학습 센터의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야외학습 센터는 학생으로부터 어른들까지 커뮤니티 대부분의 집단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다.

한편, 호주 교육부에서 그러한 최초의 야외학습 센터인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Muogamarra에 권고한 것은 오직 공립학교(government school) 학생들만이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였고, 프로그램은 학교의 교실 수업이 '야외 수업'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야외학습 센터는 1970년대 초의 과학 중심 field study에서 환경에 대한 multi-disciplinary approach 로 전환되었다. 이 Muogamarra 환경교육 센터는 bushfire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1988년 무렵에 폐쇄되었다.(Webb, J. B., 1989:2)

② 역할

초기의 야외학습 센터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단기 야외 경험을 위해 설립되었고 교사를 위한 대안 교수 전략의 실험 장소를 제공하였다. 야외학습 센터로 지정된 장소들은 이러한 학습 경험에 적합한 자연적 혹은 인공적 환경의 다양성을 제공했다.(Rowntree, N. 1993:10) 또한 호주에서 야외학습 센터 설립 초기에는 자연 연구와 환경의 이용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교육과정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짜여졌는데, 예를 들면 숲(bush)에 관한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다른 환경 이슈나 문제 해결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교육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4) 환경교육 센터 : 현재의 환경교육 형태

① 역사

고전적 '야외학습 센터'는 환경교육의 넓은 개념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학교 외 교육 센터로서 고전적 야외학습 센터의 역할을 넘어서 학교와 일반 커뮤니티 환경교육의 보급에 기여해 왔다. 1987년 2월 Canberra에서 열린 Third National Seminar of Environmental Education 의 야외학습 센터 Workshop에서 야외학습 센터의 기능과 철학을 대체할 '환경교육 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② 역할

현재 호주 학교교육 과정의 '지리' 및 '생물' 과목에 대한 야외 활동 및 환경 지식 증진을 위한 역할을 이들 야외학습 센터 혹은 환경교육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환경교육 센터들이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환경교육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각의 센터들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호주 국가 교육 과정의 환경교육과 지역 환경교육 센터의 교육적 역사와 역할을 알아보았다. 호주 국가 교육 과정에서 환경교육은 지리와 과학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SOSE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다. 동시에 지역 환경교육 센터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주변 지역 학교와의 연계를 가지고 학교와 교사 및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의 지역 환경교육 센터의 성격이 학교 교육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혹은 성인 환경교육 기관으로서 인식되어 있

는 것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과 호주의 환경교육 발달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환경교육 교육 과정을 학교교육에 도입하여 학교교육이 제도적 측면의 환경교육 발전을 주도했다. 동시에 학교 환경교육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본격적인 사회 및 커뮤니티 맥락에서 조직적인 환경교육 센터의 활발한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반면 호주의 환경교육 발전은 학교교육과 지역 환경교육 센터, 즉 formal education과 informal education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학교와 커뮤니티의 원활한 연계에 의해 커뮤니티 환경교육 기관에서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독립교과가 아닌 분산교과를 채택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호주의 상황에서 더욱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역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보완할 커뮤니티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교육의 환경교육이 지식 주입 이상의 그 무엇이 되지 못하는 현실과 선택 교과 체제에 의한 환경교육의 기회 박탈을 고려한다면 학교와 커뮤니티의 연계에 의한 환경교육 가능성의 모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생략)*